

나의 탄광촌 복지선교활동

원 응 호(집사, 강원 태백자활후견기관장)

막장에서

흔히들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게 들린다. 그러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그의 자녀 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사명인 것은 분명하기에 굳이 목회자든 아니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면 선교활동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선교나 사회복지든 모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영혼구원에 큰 목적을 둔 선교활동이나 현실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반의 사회복지활동은 그 대상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더 나아가 제도와 권력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결국 하나로 합치되는 상호보완적인 활동이다. 그런 점에서 태백 탄광촌에서 헌신해 온 나의 삶을 '선교를 위한 복지활동'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내 인생의 첫 직장을 탄광 막장에서 시작했다. 아버지도 광

부였고 가난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은 나도 또한 광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너는 빌어먹더라도 광부는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할 가장의 입장이 된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첫 출근을 하여 지옥의 입구처럼 검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갱구를 보면서 나는 등골이 오싹해 졌다. 입구에서부터 갱차를 타고 지하로 3천 미터쯤에 이르러 하차하여 ‘막장’이라 불리는 작업장에서 나는 첫 삽질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지하막장 생활은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노동이라고는 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하루 하루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2년 6개월의 막장생활을 끝으로 사무실 직원으로 발탁되었고 많은 동료광부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나의 광부생활은 끝을 맺었다. 내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지하 막장생활을 숙명처럼 여기고 ‘검은 두더지’라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광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이 늘 가슴속에 맺혀 있었다.

출근 때마다 사무실로 향하는 나와 늘 마주치던 어느 젊은 광부. 그와는 단 한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지만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일터로 향하는 그의 작은 체구를 볼 때마다 늘 안쓰러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붕락(崩落)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모든 직원들이 갱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하얀 천에 덮인 채 앰블런스에 실리고 있는 죽은 광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 날 저녁 영안실에서 마주친 영정을 보면서 나는 그 죽은 광부가 바로 매일 아침 만났던 그였음을 확인하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영정 앞에는 상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업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백일이 갓 지났을 어린애기는 천지도 모른 채 방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캐 놓은 탄이 저 산만 할 거여....”라며 함백산을 가리키며 눈물짓던 어느 선산부. 그는 30여 년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으

로 판정이 나서 일터를 떠나게 되었고 마지막 송별주를 말없이 들이키면서 회한어린 회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늙은 광부는 늘 자랑스러워했던 검사가 된 아들과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3개월 여 만에 병상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런 삶과 죽음의 안타까운 교차를 수없이 대하면서 죽음에 대한 면역이 생겼지만 내가 처음 경험했던 그 젊은 광부의 죽음은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았다.

그 후로 나는 광산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광부들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 라는 구호와 석탄 증산만이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하는 일이라며 저임금과 부실한 작업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석탄증산만을 강요당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당했고 노조는 어용화 되어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논리에 우선했다. 전 산업대비 가장 높은 사망, 산재율과 제조업 대비 10배에 달하는 노동강도, 전 산업 대비 가장 많은 직업병 이환율은 탄광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노동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막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검은 탄 먼지로 가득 찼지만 환기와 안전장구의 지급에는 인색했다. 갱도의 길이가 늘어나고 점점 지하로 깊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갱도유지로 크고 작은 붕락과 낙반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거기에는 광부 1인당 할당된 생산량(OMS)과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도급제 임금체계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더불어 광부들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였다. 탄 먼지를 뒤집어썼어도 제대로 씻을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보편화되었다. 그 전에는 얼굴이나 대충 씻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내일의 노동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다. 병렬식으로 늘어선 사택촌과 검은 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채 도시 전체를 검게 만드는 살풍경함 속에서 많은 광부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러한 광부들의 안타까운 현

실은 보도되지 않았고 '약속의 땅'이라는 TV연속극으로 미화되기 일쑤였다. 이른바 '사복사태'로 불리는 동원탄좌 사복광업소에서의 노동자들의 항거는 폭동으로 간주되었고 지금도 공식적인 평가조차 없이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고 있다.

그런 광부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는 탄광촌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며 광부들의 얘기를 취재했고 그것을 르포로 작성하여 '막장의 빛'을 통해 발표하는 일을 시작했다. '막장의 빛'은 기독교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후에 광산지역복지선교회로 개명함)의 기관지로 탄광촌의 현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외부에 알리던, 당시로써는 유일한 매체였고 이 기관지의 편집 일을 시작으로 나의 광산촌 선교(?) 활동은 시작되었다.

광산지역복지선교회에서

기독교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이하 '복지회')는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신 이정규 목사께서 탄광촌의 선교와 광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984년 2월에 설립한 특수선교단체이다. 당시로써는 탄광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은 자칫하면 이적행위로 간주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황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정규 목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복지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선교단체로 탄탄하게 자립매김을 해 갔다. 당시 나는 황지교회 교인으로 이 목사님의 선교활동을 지켜보다가 1984년 12월에 '막장의 빛'을 창간하면서 편집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간 나는 막장의 빛의 편집을 전담하면서 이 목사님과 복지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의 목회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또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준 복지회의 다양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내가 다니던 탄광도 2-3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는 탄광에서

의 생활을 이만 접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복지회의 근무를 실행해 보겠다고 결심했다. 당시(1990년 5월) 내가 받던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사례비'를 기꺼이 받으면서도 나는 그 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7년여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복지회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었던 터였고 광부출신으로 탄광촌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사명감과 더불어 평소 존경하는 이정규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다.

복지회에서 처음 담당했던 업무는 기획과 홍보였고 진폐증 환자를 위한 선교방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이를 위해 탄광촌 곳곳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고 진폐증과 산재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만나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탄광촌 사회가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종합적으로 집적한 축소판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탄광촌과 광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복지회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의 소장으로서 재직 중이던 유재무 목사와 '한국광업의 현실과 노동자의 상태'(도서출판 늘벗 발행)라는 보고서를 1991년에 공동 출판했다. 또 심각한 진폐증 문제를 고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폐증이란 무엇인가(1991년)' '잊혀진 산업전사 그들의 오늘(1995년)' '진폐보상법률 사례집(1996년)' 등의 자료집을 연이어 출간했다. 또 '막장의 빛'을 통해 탄광촌의 현실을 알리는 일도 계속한 결과 광부들의 어려운 현실은 한국 사회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정규 목사님의 지속적인 기도와 정력적인 선교활동으로 복지회는 탄광촌 복지선교의 중심적 기관으로 자리를 굳혔고 신학생은 물론 현장 목회자들의 교육장이 되었으며 복지회를 본받아 목회를 복지선교로 하는 교회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복지회가 담당했던 사업들은 선교 및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문화사업, 청소년 및 교육사업, 노동문제, 출판 및 지역언론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16

개 사업에 달했다. 교회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만 놓고 시작된 복지회의 복지선교사업은 10년 만에 탄광지역의 모든 부문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복지선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로써는 복지선교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고 개념 정리도 안된 상태였지만 이젠 보편적인 목회전략으로 그리고 신학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복지회의 역할이 나름대로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복지회에서 사역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특히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다. 먼저 부업지도사업이다. 양모(羊毛)를 직접 실로 꼬아서 손뜨개로 니트(knit)류의 의류를 제작하는 사업이었다. 부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2-3명으로 시작하던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업무를 분장하여 그 직원은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나는 1992년도부터 생산을 전담하게 되었다. 양모도 자체 목장에서 생산한 양모로 시작하여 사업이 확장되면서 고급화 전략을 갖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여 온 고품질의 양모를 사용하게 되었다. 사업은 3년 만에 참여 인원이 30여명으로 늘었고 생산된 양모제품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유명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부업사업은 양모이불제작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고 부업을 넘어서 전업의 단계에 이르자 주식회사 메리퀸으로 독립을 시키고 영업담당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완전한 사업체로 나가도록 했다. 현재 이 회사는 년 매출 50억 원을 바라보는 국내 굴지의 양모침구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업사업의 경험은 훗날에 내가 빈곤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자활 후견기관사업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이러한 부업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탄광촌 부녀자들의 건전한 생활유도와 탈선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탄광촌의 문화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광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택촌은 특히 그랬다. 하수도는 아예 집을 지을 때부터 고려되지 않았고 수도도 공동수도 1개로 10여 가구가 함께 사용했다. 사택은 슬레이트 지붕에 4인치 블록으로 지어진 집이어서 여름철의 더위와 겨울철의

혹독한 추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고 집안은 항상 습기로 가득했다. 그나마 10평도 안 되는 주거공간은 다 큰 딸이 별도로 거주할 공간마저 없어 옷이라도 갈아입을라치면 아버지는 물론 집안의 모든 남성이 바깥으로 나가야 했다. 집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공중화장실은 지저분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집 앞은 시궁창 냄새가 났고 하천은 검은 석탄물이 흘러내렸다. 비나 눈이라도 오면 집 앞부터 도로까지 모두 검은 죽탄으로 진구렁이 되었고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환경 하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밥을 먹고 남편은 일 나가기 바쁘고 집안에 있어봐야 특별히 할 일 없는 부인들은 술 먹고 화투치거나 하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였다. 거기서 발전하여 카바레 출입과 탈선으로 이어졌고 가출과 가정붕괴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탄광촌의 문제를 부업 프로그램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신문의 창간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탄광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데 계간으로 발간되는 ‘막장의 빛’이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외지에서는 탄광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지역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 결국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나름의 언로(言路)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워낙 만만치 않은 사업이었고 재원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나 이정규 목사님도 “언론사업도 복지선교에 중요하다”라며 뜻을 모아 주셨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난 다음날로 이 목사님을 창간준비위원장(후에 발행인으로 취임)으로 모시고 1991년 8월부터 지역신문의 창간작업에 돌입했다. 창간준비호를 1회 발간한 후 3개월 여의 준비를 끝내고 1991년 11월 1일 주간 태백신문을 타블로이드 8면으로 창간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광고가 아닌 순수한 후원자들의 지원만을 받아 지역정론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간정신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되었고 결국 2년 만에 엄청난 부채와 함께 지역사회로 환원시켰다. 그 후에도 사주가 세 차례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주간 태백신문은 창간 12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나는 창간주역이라는 책임 때문에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마지막으로 재가(在家)진폐환자 지원사업이다. 진폐문제는 탄광촌 복지선교의 최대의 과제이다. 진폐증은 우리나라 직업병중 가장 많이 발생한 직업병으로 전체 직업병환자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전국 진폐증환자의 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6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진폐증으로 판정된 사람에 한해서 공식 통계로 인정하고 있을 뿐 그렇지 못한 이른바 재가진폐환자들은 공식통계에서 제외되어 그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재가진폐환자들도 오랜 탄광재직경력으로 인해 진폐증에 걸렸지만 법과 제도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폐증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진폐증으로 인한 장애판정은 받았지만 법이 정한 7가지 합병증에 포함되지 못하면 단순진폐증환자로 분류되어 입원요양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들도 재가진폐환자군(群)에 포함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23개 진폐요양기관의 병상이 2,800여 개로 통원치료를 감안하더라도 약 6천여 명 정도가 입원요양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때 전국의 재가진폐환자의 수는 약 4-5만 명으로 추정된다. 태백지역(태백시와 고한, 사북지역)만 하더라도 약 3,800여명의 재가진폐환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재가진폐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

입원요양이 되면 요양급여와 각종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재가진폐환자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우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식들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일자리를 찾아 모두 외지로 나가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인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씨의 지원도 받기 어려워 이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재가진폐환자들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회가 이러한 재가진폐환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고 1990년부터 독일의 대외원조기구인 EZE와 협력하여 광산직업병관리센터를 개설했다. 그리고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태백지역의 재가진폐환자들을 위한 무료진료, 투약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1995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월드비전과 협력하여 200여명의 극빈한 상태에 있는 재가진폐환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진폐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문민정부 당시 한국이 OECD가입에 따라 독일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독일로 무작정 찾아가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태백지역의 재가진폐환자들의 실태를 설명하고 2001년까지 지원을 끌어 낸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국민소득이 8천불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한국사회가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외국의 원조기관까지 찾아가 사정을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7시간에 걸친 간곡한 설득과 토론을 통해 1997년에 끝나게 될 프로젝트를 연장시킨 것은 분명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0년 11월에는 재가진폐환자들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가진폐환자 및 현행 진폐환자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에 대해 증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회도 가졌다. 그 결과, 재가진폐환자들을 포함한 진폐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의 정부정책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2003년에 태백에 유치 결정)이 설립 추진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1997년에 목회자들이 담당해 오던 광산지역복지선교회 총무에 취임하여 2000년까지 재직하다 사회복지법인의 실무를 총괄

하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에서

복지회의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은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임의조직이었던 복지회를 법인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료양로원 '안식의 집' 사업을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90년 대홍수로 태백지역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화전지역이 거의 황폐화되는 재난을 겪었다. 이 때 집과 가재도구를 모두 잃고 시름에 빠진 무의탁노인들의 상황을 접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들을 위한 주택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택을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집만 지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무료양로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총회 사회부의 수재의연금을 지원 받아 부지를 마련하고 전국의 교회와 교우들의 후원을 받아 1992년 5월에 무료양로원 안식의 집을 단층으로 150평을 건립했다. 그러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했고 지자체의 강력한 권고도 있어 미인가 시설이 아닌 인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확충을 위한 2차 건축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당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3억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나 두 차례의 건축으로 인해 복지회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는 믿음으로 노력한 결과 빠듯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었고 1993년 3월에 복지회는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로 거듭 나게 되었다. 물론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법인화 된 것은 아니고 법인의 모태가 되었던 광산지역복지선교회는 특수선교를 담당하는 단체로 별도 운영되면서 이원적인 운영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정규 목사님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1998년 10월에 설립자이신 이정규 목사님의 별세로 상임이사를 담당해 오던 백윤구 장로가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인의 설립은 복지회 사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켰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법인 설립이후 복지회가 담당하게 된 사업들은 무료양로원인 안식의집을 시작으로 사랑의 도시락 사업장(1995), 태백자활후견기관(1999), 태백노인전문요양원(2001) 등이다.

복지회를 지금까지 지켜본 지역의 일부 목회자들로부터 복지회의 법인화가 초기의 설립정신을 저버리고 정부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고언(苦言)도 있지만 아직도 복지회는 초기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태백지역의 중심적인 복지선교기관의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그것을 현장에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은 처음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이제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선교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많은 선교동역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특별법제정을 위한 지역주민운동 참여

1990년을 고비로 태백탄광촌을 비롯한 강원남부지역의 탄광지역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혼란을 겪게 되었다. 지역경제를 떠받쳐 주던 많은 탄광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많은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지역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사택촌의 곳곳이 빈집이 되면서 탄광이 밀집해 있던 지역은 공동화(空洞化)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여파로 태백지역은 전국 최대의 탄광도시에서 폐광도시로 전락

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미래를 담보해 낼 대체산업이 없는 지역의 위기를 직접 극복해 보자는 주민들의 뜻이 모여져 고원관광레저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주식회사가 1995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막상 회사는 설립되었지만 개발자금의 확보는 차치하고 현행의 개발관련 법과 제도의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스키장 건립을 위한 개발사업은 계획수립조차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주식회사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하일호 씨(한의사)와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1995년 새해 벽두부터 태백시교회협의회 주최로 대책회의를 갖고 '폐광지역개발특별법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일호 씨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원기준 목사와 더불어 나는 하 위원장의 요청으로 특별법제정운동에 뒤따라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하 위원장과 원기준 목사 그리고 나는 '삼총사'로 불리며 서로의 뜻을 합쳐서 특별법제정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근의 고한, 사북 등 강원남부지역의 폐광지역 주민대표들도 함께 참여하여 '강원남부주민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입법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입법의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이 아니면 법제정의 기회가 없기에 그 추진 과정은 지난했다. 지역대표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도 특별법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고 환경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중앙부처와의 대립 등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995년 11월에 감격적인 국회의결을 쟁취했다.

특별법 주민입법(안)의 작성과 각종 성명서 및 제안서 등 주민운동의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나는 본연의 복지회 업무까지 병행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듯한 생활을 했다. 특별법제정운동이 본격화 된 1995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여 동안 나는 매일

3-4시간의 잠만 자면서 1만여 쪽에 이르는 문건을 만들어 내었고 중앙부처 방문과 각종 회의 및 투쟁사업 등으로 이들이 멀다 하고 출장을 다녀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고(故) 이정규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가 큰 힘이 되었다. 지역주민운동에 참여하기 전 많은 갈등을 하면서 목사님과 상의할 때 “지역사회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복지선교다. 업무가 소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나서서 역할을 다 하라.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그분의 말씀은 내게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을 큰 가르침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로 나는 특별법제정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상황에 직, 간접적인 역할을 계속 맡을 수 있었고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백자활후견기관 설립과 자활지원사업

특별법제정운동이후 나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선교다”라는 새로운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노동상담소를 통해 진행된 폐광실직자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문제는 지역이 개발되고 대체산업이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폐광실직자들은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재와 진폐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장애인들의 경우는 더욱 막막하다. 이미 이들 실직자 대부분의 연령대가 50대가 주류를 이루는 중, 고령층인데다 탄광에서 탄 캐는 일 외에는 특별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대부분의 실직자들은 국졸에서 중졸 정도의 저학력층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탄광이외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막혀 있다.

이러한 폐광실직자들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고 장기 실직의 끝은 결국 신 빈곤층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졌다. 그 여파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학업의 포기과 가출, 저소득 근로자로의 편입 등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결국 이들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복지영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굳혔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사하던 중 자활지원센터라는 메커니즘을 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은 지역의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8년 당시 전국에 18개소뿐이었던 자활지원센터를 태백에도 설립하기 위해 무작정 복지부 관계자를 만났고 태백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반복적인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 길로 내려가서 '태백자활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실제로 1998년 5월부터 간판을 내건 후 EZE프로젝트에 포함된 진폐환자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자활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했고, 1년 뒤인 1999년 9월에 보건복지부 지정 제19호로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자활지원센터(2000년에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 변경됨)를 설립하게 되었다. 센터 설립 후 나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해가면서 자활지원사업의 터전을 닦아 나가는데 매진을 했고 2001년에 법인 사무국장을 사임한 후 상근 관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태백지역의 환경 하에서 대도시형의 자활지원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애초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자활지원사업의 개발과 더불어 단 1명의 빈곤층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모두 찾아내 보자는 뜻으로 '작은 일자리 찾기 운동'을 자활사업의 모토로 삼았다. 그 결과 '숲가꾸기 자활공동체'가 복지부로부터 지역특화사업의 우수성공사례로 인정되었고 태백 시도 자활지원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는 자활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빈곤계층의 주민들이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성과위주의 정부정책이 문제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결국 자활지원사업의 종착점이 자활공동체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태백자활후견기관은 주식회사 강원임업을 포함하여 2개의 주식회사와 4개의 자활공동체 및 10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는 인력도 80여명이다. 자활사업의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돋보이는 성과이기는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다. 자활지원사업에 담겨 있는 선교적 과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경제 또는 대안 경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공공영역인 국가부문을 제1섹터, 시장영역인 기업부문을 제2섹터라고 한다면 이러한 두 영역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이며 비영리적인 시민사회부문을 제3섹터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89년에 사회적 경제를 공식 용어로 채택하고 '사회적 경제국'이라는 공식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왜곡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소위 '8대2의 사회'로 표현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현상은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할 뿐더러 그 빈곤을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이른바 '빈곤의 전승'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전승을 막고 빈곤하게 만드는 실업과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급적 관점의 투쟁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사회적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협력과 조화를 통해 운동의 성과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과 자활지원사업은 그러한 빈곤과 실업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메커니즘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나는 태백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한국사회의 모순구조가 집적되다 보니 이를 극복해 내려는 지역운동의 에너지가 끝없이 발산되고 있고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이 대안경제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임을 확신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나의 탄광촌 선교이야기가 신변잡기 같은 방향으로 흐른 것 같다.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 선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나를 요구받고 있기에 다소 장황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제 글을 맺으면서 앞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현장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 같다.

“왜 당신은 늘 새로운 일만 찾아가는 것인가?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도 되었는데...”라는 질책 아닌 질책을 들을 때가 많다. 사서 고생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보잘 것 없는 나를 광산노동자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직 부족한 믿음으로 그 뜻을 모두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만 장님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은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가난은 결코 숙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가난극복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내에서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약도 따른다. 결국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나는 앞으로 대안경제의 틀을 만들고 빈곤과 실업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자활공동체 모델들을 한국사회에 제시해 보고 싶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실험단계를 넘어서 대안경제의 비중이 GDP의 4-6%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에도 대안경제의 틀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나의 선교적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갈 계획이다.